

박영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가 짧다는 핑계로 서울에서 방콕을
했는데 그런 청승, 공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역시 명절은 가족과 함께인 걸까요? TT

바쁘실 텐데 원고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호 특집은 초록정치를 낚는다 (가제)이고요
여는말 (코너 제목은 '에코토피아')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서 살림정치, 초록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놓으시면서 근사하게 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은 A4 반장이고 마감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팩스로 보내주셔도 좋고 riggyrop@
hanmail.net (김양희) 메일로 보내주셔도
환영입니다.

기쁜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소식지 담당 치자 드림